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Zodiac Maritime poised to strike on DSME options — taking boxship orderbook past \$1.6bn

Zodiac Maritime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확보한 컨테이너선 옵션분 4척에 대한 확정발주를 추진중이라고 보도됨. 15,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의 예상인도기한은 2024년 상반기라고 보도됨. 선가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음. (TradeWinds)

MSC eyes \$1bn effort to convert 40 boxship newbuildings to dual fuel

세계 2위 컨테이너선사인 MSC(Mediterranean Shipping Co.)가 약 40척의 재래식 컨테이너선을 이중연료추진 선박으로 개조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해당선박들은 중국에 발주된 선박들이고, 개조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10억달러이상이라고 보도됨. 24,000TEU급 선박의 개조비용은 3,500만달러, 이하 네오파나막스급 선박의 개조비용은 2,000~2,500만달러라고 보도됨. (TradeWinds)

대우조선해양, 3천700억원 규모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 1척 수주 공시

외신보도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모나코 에네티사로부터 WTIV 1척을 3,682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함. 인도기한은 2024년 8월까지라고 공시함. 해당 선박은 14~15메가와트(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5기를 한 번에 싣고 운항이 가능하고 수심 65m까지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현대로템, 브라질 자회사에 951억원 투입..."경영 정상화 추진"

현대로템은 브라질 내에서 철도 생산·판매 사업을 하는 자회사인 현대로템의 브라질법인에 951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힘. 현대로템은 이날 브라질법인의 주식 4억4천392만1천504주를 약 951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함. 브라질법인의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따른 것으로, 브라질법인은 현대로템이 100% 출자한 법인임. (연합뉴스)

두산중공업, 400억 규모 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 기자재 수주

두산중공업은 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발주처인 롯데건설과 체결했다고 밝힘. 수주 금액은 400억원 규모이며 두산중공업은 대구와 청주 열병합발전소에 120MW급 증기터빈과 발전기 각 1기씩을 2022년 10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한화시스템, 100억원 투자 유망 중소벤처 육성

한화시스템은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공동투자형 기술개발기금을 조성, 방산관련 소부장분야 혁신적인 중소벤처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고 보도됨. 또한 31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 중소협력사 경영자금을 저리로 대출지원한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